

투데이 칼럼

북한 미사일 발사 의미

2022년 새해 들어 북한이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독자 제재 카드로 대북 압박에 나서자 북한은 답화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북한이 지난 1월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옛해 전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과 같은 기종이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개발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개발의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는 700km에서 1,000km로 늘었다. 요격을 피하는 항공비행을 뜻하는 선회기동 거리도 120km에서 240km로 늘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 비행 궤적을 띄운 모니터 사진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일본 방위성이 예측한 궤적과 거의 일치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정복규
논설위원

혐의 등으로 북한 인사 6명이 포함됐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인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무력시위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8시간여 만에 평안북도 내륙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 보란 듯이 또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못 박은 것이다. 북한은 자강도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항공 비행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이 아니라 '개량된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항공 비행해야 하고 이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6이 나온 이후 현격히 속도가 떨어졌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요격을 회피하는 측면 기동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글라이더 형태의 동풍-17과 달리 원형 탄두부에 작은 날개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난 1월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다.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지르콘이 지난해 7월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속도가 마하 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는 '메일건'을 실용화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코로나 비상 방역의 형태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기초를 기존의 봉쇄 위주의 통제 방식에서 선진, 인민적 방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제 일변도의 방역 체계가 2년을 넘어가자 주민들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주민들을 무작정 억누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동원해 여론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언급한 선진적 방역이 북중 국경 개방이나 코로나19 백신 수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설

탄소섬유 원적외선 난방 시스템

최근 신소재 탄소섬유 원적외선 난방 시스템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기로 인상으로 고효율 난방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실제로 겨울 난방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과 운전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코 전북지사 세화 E.N.G는 원적외선 탄소섬유 발열체 난방 시스템 전문 업체다. 친환경과 5분 이내 쾌속 난방, 에너지 절감, 그리고 간편한 시공이 특징이다.

특히 인체와 생체 활동에 유익한 태양의 복사열 원리를 도입했다. 주택 난방은 물론 찜질방, 냉난방, 업소용 난방, 농업을 난방, 온열제품 등 난방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접목이 가능하다.

중전 난방 기기는 주로 석유·가스난로와 전기난로가 사용됐다. 그러나 석유난로는 전기난로에 비해 2~3배의 가격 부담이 있다. 특히 연소가스 방출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전기난로는 고열을 발생시키는 데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세화 E.N.G 제품은 강한 열로 실내 전체 면적(30~50평형)을 단시간에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탄소봉 자체에서 90%의 강력한 원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복사열기는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킨다. 음이온 방사로 쾌적한 난방은 물론 곰팡이 등 항균 탈취 작용의 효과도 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식당, 공공시설, 이동식 주택과 농막, 컨테이너하우스, 찜질방 등에서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 업소, 사무실, 공장, 학교, 농가 시설, 싸우나, 군 막사 등도 대형 난방 용으로 적합하다.

특히 뛰어난 열효율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간편한 시공으로 시공 기간 단축 및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 갈수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청렴대상 서거석 전북대 총장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렴인으로 선정됐다. 서 전 총장은 지난 1월 20일 서울 양재동 대한 윤봉길 의거기념관에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청렴대상을 수상했다.

이날의 청렴대상은 미래 세대에게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의 꿈을 물려줄 수 있는 청렴인을 선정,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 전 총장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중에서 전북대를 계약 분야 청렴도 전국 1위에 오르게 했다.

이를 토대로 혁신대학 모델로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또 전국 국·사립 4년제 대학의 총장협의회장을 맡아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 수석부회장 겸 전북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취약계층 가정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살폈다는 것도 공적에 반

영했다. 청렴(淸廉)은 부패를 멀리하고 맑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다. 청렴도(淸廉度)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정도를 말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청렴한 사회가 상호 신뢰의 관계를 갖고 안정된 사회를 만든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갈수록 절실하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가 필수적이다.

공무를 맡은 사람이 청렴한 일처리를 서약하는 청렴 계약체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은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배워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조지아계 준군사조직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인의 자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인들을 훈련하고 있다. 이 조직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조지아계 자원봉사자들로 결성했으며 지금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 추위" 고드름 수염이 주렁주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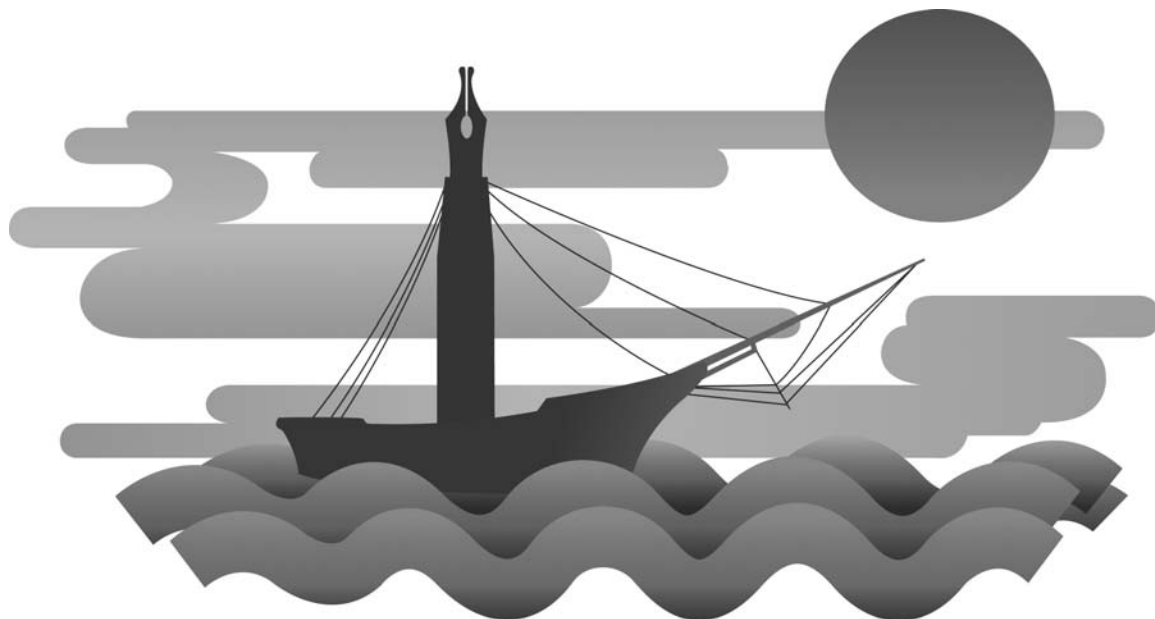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지난 4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조니 캐시 동상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켈비 카운티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이날 오후까지 12만 명 이상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